마르크스주의 연구
일반 논문

세계체제분석의 탄생

지식사회학적 연구

차태서*

본 연구는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청년 시절부터 1972-1974년 세계체제분석이 탄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여섯 시기로 나누어 그의 사유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살펴본다. 특히 세계체제분석 탄생의 시공간적 배경이 되는 정치적·이론적 상황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고찰이 중심이 된다. 본론의 2장과 3장에서는 학창 시절의 월러스틴이 자신의 기본 세계관과 정치의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4·5·6장에서는 구조기능주의와 근대화론에 바탕한 주류적인 지역연구자로 성장해가던 월러스틴이 종속이론과 페르낭 브로델의 영향을 받고, 68혁명을 경험하면서 이론적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7장과 8장에서는 세계체제라는 새로운 분석단위를 제시하며 등장하는 세계체제분석의 탄생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체제분석의 함의가 68혁명을 배경으로 지배적인 근대적 사회과학을 탈피하고 새로운 탈근대적 역사과학을 제시하는 집단적인 지적 운동이라는 점을 밝히게 된다.

주요 용어: 이매뉴얼 월러스틴, 근대화론, 종속이론, 페르낭 브로델, 68혁명, 세계체제분석, 탈근대적 역사과학.

* 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 군사전략학과, pridects@afa.ac.kr.

1. 서론

이 연구는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1930-)의 세계체제분석(World-System Analysis)이 탄생한 시공간적 맥락과 생성 과정을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월러스틴 자신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Wallerstein in his own words)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월러스틴은 그 어느 학자에 못지않게 많은 저술을 남겨놓았고 자신의 연구 성과를 스스로 반추하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던 학자이다.[1] 따라서 이러한 연구방법이 그의 사상의 발전지도를 작성하는 데 하나의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월러스틴은 자신의 지성사를 반추하는 최근의 글에서 지난 50여 년간 자신이 비교적 일관된 학문적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세 차례만큼은 정치적인 혹은 지적인 전환점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 전환점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Wallerstein, 2000: Introduction).

① 1940-1950년대 좌파를 분열시킨 제2인터내셔널과 제3인터내셔널의 갈등에 대한 고민 과정에서 세계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② 아프리카 민족해방운동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제2·제3인터내셔널의 논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즉, 유럽에서의 그러한 논쟁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양극화라는 근본적이고 현재 진행형적인 사태를 무시하는 처사였음을 인식하게 됐다.

③ 1968년 세계혁명을 겪으면서, 양자 간의 표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심적 발전에 대한 자유주의의 환상과 구좌파적 반체제운동의 발전주의적 시각이 근본적 역사인식에서는 동일한 형태를 가진 근대 이데올로기의 쌍생아라는 점을 간파하게 됐다.

따라서 월러스틴의 지성사를 해부해보려는 본 연구의 시도도 이와 같은 전환점을 참고하여 구성될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그의 세계체제분석이 탄생하게 되는 1972-1974년까지의 지성사를 여섯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각

1) 그의 저술 목록과 주요 경력은 http://fbc.binghamton.edu/iwcv1004.pdf(검색일: 2008.3.31.)를 참조할 것.

시기의 분기점은 그의 삶의 바탕을 이루는 시공간의 중대한 변화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개별 시기마다 그가 어떤 물리적·이론적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그의 학문적 고민과 연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적 여정이 세계체제분석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제시하여, 그것이 왜 기존의 19세기적 사회과학을 탈피한 탈근대적 역사과학으로 부상하게 되는지를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2. 기본 세계관의 형성기: 성장기(1930-1947)

월러스틴은 다른 일반인에 비해 지적으로 매우 조숙한 편에 속했다. 그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서술하면서 이 시기에 이미 그의 지성사 전반을 특징짓는 문제의식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 나의 지성사는 나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탐구였다. 이 탐구는 언제나 지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과정이었다. 나는 양자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나의 이러한 탐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Wallerstein, 2000: xv).

그의 고교 시절은 한창 시대 상황이 암울해지고 있던 제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이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그는 가정과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으로 의식 있고, 특히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났다. 당시에는 세계의 좌파진영 내에서 분열이 극심하던 때였는데, 그 또한 그러한 분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 나의 가족은 정치적인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집안 내에서도 세계정세가 항상 화젯거리가 됐다. 진주만공격 이전부터 나치즘과 파시즘에 대한 투쟁이 우리 가족의 주요 관심사였다. 또한 우리는 세계 좌파세력들의 거대한 분열인 제2인터내셔널과 제3인터내셔널 간의 대립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Wallerstein, 2000: xv).

또한 그는 당시 시대 상황에 걸맞지 않게 벌써부터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것 역시 그의 좌파적 정치성향 못지않게 그의 인생 전체를 규정지은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 나는 나의 주된 지적 관심영역으로 미국정치학을 삼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는 비(非)유럽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특히 근대 인도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간디와 네루에 대해 많은 책을 읽었다(Wallerstein, 2000: xvi).

한편, 이 시기가 월러스틴의 지성사에 미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골드프랑크(Goldfrank, 2000: 153-4)는 뉴욕이라는 공간을 꼽고 있다. 무엇보다 월러스틴이 1930년에 이 도시에서 태어난 후, 중간의 잠시 공백기(1971-1976)를 제외하면 노년기까지 거의 항상 이 도시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골드프랑크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의 뉴욕은 세계 최강의 국가로 부상해가는 나라의 최대 도시로서 급성장해가고 있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상징(UN)', '계급과 국가권력(John Rockefeller, Robert Moses)', '인종의 사회적 이동성(Fiorello LaGuardia, Hebert Lechman, Jackie Robinson)', '문화정치적 급진주의(Greenwich Village, the Left)', '경제와 금융(Wall Street)', '패션과 광고(Fifth and Madison Avenues)', '출판과 고급문화의 중심지' 등이 이 당시 번영하던 뉴욕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뉴욕이 마치 성숙기 마르크스의 런던처럼 청년 월러스틴에게 지식인의 안식처이자,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 사유하게 하는 좋은 환경으로 기능했다는 것이 골드프랑크의 주장이다. 즉, 이후 세계체제론자로서 월러스틴의 작업은 큰 그림을 잘 보며, 인종갈등이라는 외피 속에 숨겨진 계급갈등을 간파해내는 것에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뽐내는 친영파적 뉴잉글랜드 엘리트들을 경멸하는 유태계 뉴요커의 특징적 성향들이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골드프랑크는 지적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뉴욕의 두 가지 특성이 비판가들이 향후 월러스틴의 작품에서 발견하는 이론적 불균형을 설명해주는데, 곧 대규모 산업생산에 대한 상업과 금융의 압도적 우위, 군사행정적 국가행

위에 대한 경제적 국가행위의 우세함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1930-1947년간의 기간은 월러스틴이 비교적 어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후 세계체제론자로 성장해가는 밑바탕을 어느 정도 형성했던 중요한 기간이었다. 시대·정치적 상황, 가정환경, 뉴욕이라는 도시의 공간적 특징 등이 모여 정치적으로 의식 있고, 좌파적 성향을 지녔으며, 제3세계에 관심이 많은 청년 월러스틴을 탄생시킨 것이었다. 이런 '기본소양'을 갖춘 월러스틴은 이후 대학에 들어가 더 본격적인 비판적 지식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3. 정치의식의 발전: 컬럼비아 대학 학부 시절에서 석사 과정 시기까지(-1954)

컬럼비아(Columbia) 대학 학부와 석사 과정 시절, 그의 지적 성장은 크게 두 가지 경험에서 영향을 받게 됐다. 하나는 학생정치조직에의 참여였으며, 다른 하나는 컬럼비아 대학 학풍의 습득이었다.

1) 학생정치운동에의 참여: 비판적 정치의식의 성장과 아프리카와의 만남

그는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좌파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좌파 정치조직 내의 심각한 분열 — 제2인터내셔널과 제3인터내셔널의 분열, 즉 서구 사민주의와 소련 사회주의 간의 갈등 — 을 목격하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고민들은 이후 그가 세계체제분석을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실마리가 됐다(Wallerstein, 2000: xv-xxi).

1951-1952년 동안 그는 드디어 이후 10여 년간 그의 연구방향을 결정지을 사건을 맞이한다. 이 사건 역시 그의 학생정치활동에서 비롯됐는데, 이것은 학부 시절 초기에 갖고 있던 인도에 대한 관심을 아프리카로 돌리는 계기가 됐다.

> 1951년 나는 한 국제청년회의(International Youth Congress)에 참석하게 됐고, 거

기서 나보다 나이는 몇 살 많지 않았지만 벌써 자기 나라에서 상당한 정치적 지위를 차지한 아프리카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1952년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린 다른 청년회의에서 나는 갑자기 내 자신이 곧 독립운동으로 발전한 — 주로 프랑스령 서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 혼돈의 한가운데 휘말리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아프리카를 나의 지적 관심영역이자 연대의 대상으로 설정하기로 결심했다(Wallerstein, 2000: xvi).

그가 아프리카 연구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은 단순히 아프리카에 대한 호기심이나 지적 관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시대를 앞지르는 일종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후 그가 세계체제분석을 창시하는 데 기초를 이루는 힘이 됐다.

내가 일찍이 나의 지적 탐구를 친숙한 나의 조국이 아닌 당대 아프리카 — 내가 처음 방문하고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여전히 식민지였던 대륙 — 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1950년대에 가진 나의 확신, 즉 현재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서구의 통치를 극복하려는 비(非)서구세계의 투쟁일 것이라는 나의 확신 때문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사실은 남-북관계 또는 중심-주변관계 또는 유럽중심주의의 문제라고 불린다. 그러나 당시 1950년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다른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시대관을 공유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대(對) 전체주의의 투쟁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부르주아지 대(對)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으로 불리던 '냉전'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생각했다. 따라서 나의 지적 탐구는 정치계와 학계에 널리 퍼진 합의(consensus)에 대한 저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체화된 지배적인 세계관에 의해 산출된 개념들을 몰아내는 투쟁의 역사였다(Wallerstein, 2000: xvi-xvii).

그러나 월러스틴은 석사논문부터 바로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1951년 학사졸업 후, 1951-1953년 동안 군복무를 마친 그가 대학원생으로서 컬럼비아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시급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만 했다. 희망적이었던 미국 전후기간(1945-1950)의 달콤한 시간은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순식간에 끝장이 났고, 미국은 매카시즘(McCarthyism)의 광포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월러스틴은

자신의 석사논문(Wallerstein, 1954)을 통해 매카시즘을 분석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활동을 했다(Wallerstein, 2000: xvi).

2) 컬럼비아 대학 학풍의 영향

컬럼비아 대학의 학풍이 학부와 석사 과정 시절 월러스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어 흥미롭다.

골드프랑크(Goldfrank, 2000: 154)의 경우, 컬럼비아 대학이 뉴욕의 정서(pathos)를 반영하여 코스모폴리탄적이고 반항적인 기질을 소유해, 하버드(Harvard)나 예일(Yale)의 기득권적 자유주의 기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진취적 기풍의 대학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월러스틴이 특히 이러한 컬럼비아의 전성기 — 마르쿠제(H. Marcuse), 폴라니(K. Polanyi) 등이 이 시기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진으로 있었다 — 에 공부할 행운을 가지게 됐다고 서술함으로써, 컬럼비아의 학풍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골드프랑크는 학부 시절 월러스틴의 지도교수였던 밀즈(C. W. Mills)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 사회학의 두 가지 특징 — 거대이론과 추상적 경험주의 — 에 대한 밀즈의 비판은 이후 월러스틴의 법칙 정립적 과학과 개별기술적 과학의 분열에 대한 공격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밀즈의 역사를 중요시하는 태도, 거대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유주의와, 그보다는 약한 정도지만, 마르크스주의 양자에 대해 모두 거부하는 태도 등이 밀즈가 월러스틴에게 남긴 또 다른 유산이라고 소개한다. 덧붙여, 이러한 유산들은 이후 월러스틴이 『사회과학 세계백과사전(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에 밀즈 항목을 서술할 때 잘 드러난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월러스틴 자신은 컬럼비아 대학의 학풍이 자신에게 끼친 지대한 영향은 인정하지만, 그 영향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이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남겼다.

> 학교교육에 관한 한 나는 컬럼비아 대학의 일반교육 프로그램과 1950년대 세계사회학의 영향력 있는 거점이자 구조기능주의의 전파자 역할을 했던 컬럼비아 대

학 사회학과 대학원의 산물이다. …… 나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사회과학의 이단아였다. 그러나 나는 당시의 정통파이론(orthodoxy)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의심할 여지없이 나는 그러한 지적 훈련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Wallerstein, 2000: xi).

이와 같이 그는 우리가 곧 뒤에서 살펴 볼 것처럼, 1950-1960년대에 일반적인 온건한 아프리카 연구자로 자신을 만들어냈던 컬럼비아 대학의 학풍에 대해 비꼬듯이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마르쿠제, 폴라니, 밀즈 등의 쟁쟁한 학자들이 포진해 있었는데도, 컬럼비아 대학의 사회학과, 특히 지역연구 분과는 매우 정통적인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월러스틴은 이러한 컬럼비아의 학풍 때문에 1950-1960년대에 다소 모순적인 입장을 가진 학자로 자라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좌파적이고 반(反)식민지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하지만, 정작 자신의 연구에서는 매우 보수적이고 유럽중심적인 학문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연구방식의 문제는 다음 부분에서 살펴볼 것처럼 그 시대의 구조적인 한계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4. 아프리카 지역연구자로서의 성장: 박사 과정에서 68혁명 이전까지(-1967)

이 시기에 월러스틴은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프리카 지역연구자로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그의 지성사에서 이 기간이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이 시기 연구가 이후 세계체제론자로서의 월러스틴이 그토록 격렬하게 비판했던 구조기능주의적·근대화론적 탐구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월러스틴을 평범한 아프리카 연구자로 만든 당시의 시대적 제약에 대한 월러스틴 자신의 회고와 함께 구조기능주의와 근대화론의 내용과 한계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순조롭게 주류학계에서 인정받는

아프리카 연구자로 성장해간 기간(1955-1967)에 집필한 저술들을 분석하여, 이 시기 그의 사상의 특징을 포착해볼 것이다.

1) 1950-1960년대 미국 지역연구의 상황: 구조기능주의와 근대화론

1997년, 월러스틴은 미국 학계의 진보진영 원로들과 함께 냉전시기의 미국 학술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회고논문집(Wallerstein et al, 2001)을 출간했다. 이 논문집에서 월러스틴은 냉전 초기에 미국의 지역연구가 시대적 상황의 압력에 의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견인됐는지를 술회한다. 이러한 그의 설명[2]을 통해 우리는 1950-1960년대의 월러스틴이 왜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이후에 탄생하게 될 세계체제분석과 상반되는 방법론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의 이 논문을 중심으로 1950-1960년대 주류적인 미국 지역연구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서 당시의 월러스틴이 직면한 지적 한계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1940년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를 경영하는 패권국으로 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고립주의 정책을 표방했던 미국은 제국경영에 필요한 지적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결핍 상황은 단순히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은 결과일 뿐 아니라, 당시 사회과학의 매우 보수적인 19세기 스타일의 분과학문구조 자체에서 유래했다. 즉, 19세기의 사회과학은 연구영역을 서구와 비서구로 엄격히 구별한 채, 사회학·정치학·경제학 등은 서구 지역만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치부했으며, 비서구 지역은 인류학과 동양학[3]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분류·연구하는 학문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비서구사회를 연구하는 인류학과 동양학은 정작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현대 지역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지역의 비역사성(nonhistory)

2) 논문 제목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냉전시대 지역연구」이다.

3) 양자를 가르는 기준 또한 흥미로운데, 서구의 기준으로 보아 매우 미개한 지역(예컨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은 인류학의 영역이었으며, 좀 나은 문명 지역(예컨대, 중국과 중동)은 동양학의 영역으로 분류됐다.

을 가정한 민족지학적(ethnography) 연구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두 분과학문은 비서구사회는 역사적으로 동결(凍結)되어 있어 자율적으로 근대화될 수 없다는 너무나도 노골적인 전제에 기초해 있었던 것이다(Wallerstein et al, 2001: 133-6).[4]

따라서 냉전이라는 첨예한 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제국경영에 필요한 역동적인 지역 현대사의 데이터를 수집해줄 '지역연구(Area Studies)' 분과를 직접 나서서 '창조'하게 됐다. 당시 미국에서는 지역연구탄생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거가 크게 두 가지로 제창됐다. 첫째는 학문 외적 이유로서 미국이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었고, 둘째는 학문 내적 이유로서 사회과학의 지나친 특수화를 극복하고 보편성을 강화해줄 많은 데이터를 지역연구가 보충해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Wallerstein et al, 2001: 140-1).

이후 미국의 지역연구는 사회과학연구위원회(SSRC)와 수많은 재단들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했고, 대학 내에서도 안정적인 학문분과로 자리잡게 됐다. 특히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발사 이후로는 미국의 안보의식이 더욱 강화되어 1958년 국방교육법(NDEA)이 통과됨으로써, 지역연구는 거의 무제한의 국가적 보조를 받게 됐다(Wallerstein et al, 2001: 149-50).

이렇게 형성된 미국의 지역연구는 크게 보면 구조기능주의와 근대화론에 지배받고 있었다. 그리고 두 이론은 당시 사회과학계의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이론들로써 이른바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었다.[5]

먼저 구조기능주의는 사회를 상관된 부분들로 이뤄진 상대적으로 안정된 체제(system)라고 가정하며, 각 부분을 상호 의존하는 유기적 관계로 이해했다. 따라서 사회변동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사회체제가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의미했다. 근대화론은 이 구조기능주의를 메타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근대의 사회변동을 이해하려는 탐구 노력이었다. 이 이론은 근대의 거시적 사회변동을 공식화(formulation)하기 위해 유럽의 산업화를 모델로 설정했으며, 근대사회와 전

4) 이와 같은 19세기적 사회과학의 모습을 좀 더 깊숙이 설명한 저술로 Wallerstein et al(1996)을 참조할 것.

5) 이하 구조기능주의와 근대화론에 대한 설명은 Shannon(1996: 2-5) 참조.

근대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해 각각의 이상형(ideal type)을 분류하고 도표화했다. 그리고 이 도표에는 전근대적 사회의 특징을 제거하면 곧 근대사회가 된다는 이론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론의 실천적 함의는 이른바 '단계론'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단계론에 따르면, 제3세계 국가들은 이제 막 근대화를 시작한 전통사회들인데 역사적 후진성 때문에 현재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개화된 자국의 엘리트들의 지도 아래 이런 후진성들을 제거·극복한다면 이론상 언제든 — 일종의 에스컬레이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 급속한 근대화의 도상에 오를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구 선진국들은 자비를 베풀어 후진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이들 후진국의 궁극적인 발전 모델로서 혹은 언젠가는 달성될 미래상으로서 설정됐다(Wallerstein et al, 1991: 22-3).

그러나 1964년 캐멀롯 작전이 폭로되면서 미국의 지역연구는 심각한 윤리적 타격을 입게 됐다.[6] 그리고 무엇보다 1968년 혁명을 통해 지역연구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그 연구가 가지고 있던 숨겨진 전제와 해독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 즉, 지역연구는 학문적 식민지주의와 자기만족적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역연구들이 제시하던 비서구 지역의 급성장 전망이 실제 현실에서 정반대로 증명되면서 지역연구의 정당성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게 됐다. 다시 말해 1970년대에 이르러 지역연구가 가지고 있던 지적 가정과 전제들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회의되기에 이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조기능주의는 사회의 안정과 협동만을 강조하며 사회체제를 지나치게 고정된 추상적 실체로 파악함으로써 몰역사적·정태적인 한계를 드러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리고 근대화론의 경우 각 사회의 '안'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밖'의 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제3세계의 낙후성을 후진국의 책임으로만 전가했으며, 서구의 산업화 과정(특히 영국의 경험)을 모든 사회가 따라야 할 보편적 형태로 가정함으로써 현실과 전혀 조응하지 못하는 가상의 이론일 뿐이라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 내적인 비판의 등

6)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Wallerstein et al(2001: 165-70) 참조.

장보다도 구조기능주의와 근대화론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재촉한 것은 바로 학문 외적인 현실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됐다.

> 분석의 모형으로서의 발전은 1960년대에 이르러 이것이 하나의 경제적 현실과 두 가지 정치적 발전 위에서 좌초될 때까지도 크게 유행했다. 경제적 현실이란, 모든 이론들이나 타당하다고 여겼던 노력들(원조, 기술원조, 인적자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국가들과 발전 중인 국가들 간의 격차가 작아지기는커녕 점차 커졌다는 점이다. 두 가지 정치적 발전은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현실의 반영이며 하나는 베트남, 알제리, 쿠바의 경우와 같이, 전 세계를 통하여 다소간의 성공을 거두면서 무장투쟁을 수행했던 민족해방운동의 출현이었다. 이들의 투쟁은 미국과 서구 내에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당시까지 발전주의자들이 학계에서 손쉽게 주류를 이루던 상황을 사실상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정치적 대변동은 공산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쌓여온 상호 연관된 위기들—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동구에서의 변화들, 중·소 간의 분열, 문화혁명, 유로코뮤니즘의 성장—이 이와 유사하게, 각 국가가 통과해야만 하는 순서라는 스탈린판 발전주의의 내적인 타당성을 붕괴시켜왔던 것이다(Wallerstein, 1985: 17-8).

결국 이러한 학문 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한 구조기능주의와 근대화론은 그 이론적 적실성을 상실하게 됐고, 그로 인한 학문적 공백의 자리에 남미와 아프리카의 연구자들에 의해 탄생한 이른바 종속이론이 등장했다.[7]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이론이 학계에 등장했다는 일상적 의미를 떠나서, 비교정치학 혹은 국제정치학을 지배하고 있던 주류담론인 발전주의 패러다임 자체가 부정됐다는 혁명적 의미가 있었다(노재봉, 1985: 162-3).

2) 아프리카 연구자로서의 순조로운 성장(1955-1967)

한편, 1967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전까지 월러스틴은 주류적인 아프리카 연구자로서 성장하게 된다(Goldfrank, 2000: 155-6). 앞에서 설명한 시대적 담론과 학문 환경의 제약이 이러한 월러스틴의 굴절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하에서

7) 종속이론의 등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은 Packenham(1998) 참조.

는 이 시기 월러스틴의 연구방식을 당시에 쓰인 주요 저술 3가지를 중심으로 요약해봄으로써, 세계체제분석가가 되기 이전의 월러스틴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8]

(1) 박사학위논문[9](1959)

1955년, 월러스틴은 포드 재단의 아프리카 연구 지원금을 받아 박사논문 집필 과정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갔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 논문은 골드 코스트[Gold Coast, 독립 후 가나(Ghana)로 국명 변경]와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 두 국가에서 벌어지는 민족운동의 부흥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에 관한 글이었다. 특히 가나와 아이보리 코스트의 반(反)식민지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을 비교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었다. 그는 각양각색의 엘리트들과 인터뷰하여 그들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전형적인 근대화론자이자 논문의 지도교수인 라자스펠트(P. Lazarsfeld)의 전통에 따라 일련의 도표를 작성했다. 이 연구에서 그는 자발적 결사체가 독립정당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이론적 설명을 제시할 때, 러너(D. Lerner), 아이젠슈타트(S. N. Eisenstadt), 앱터(D. Apter), 심지어는 파슨스(T. Parsons) 등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면서 상투적인 근대화 이론의 문헌들을 인용했다. 아프리카를 설명하는 데 정태적인 기능주의적 사회이론은 후일 여러 가지 급진이론들의 비판에 의해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그가 속한 학계는 당시에 여전히 기능주의 이론에 지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논문은 당시에 이론이나 방법상으로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수많은 학위논문들 중 하나였지만, 여타 연구자들과 다르게 유창한 불어 실력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많은 현지조사(fieldwork)를 통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2) 『아프리카: 독립의 정치학』(Wallerstein, 1961)

이 책은 당시 아프리카 독립에 관한 미국 대학의 수업들에서 많이 읽히던 교과서였다. 물론 월러스틴은 정치적으로 반식민지주의자였지만, 글에 나타난

8) 이하 내용은 Ragin & Chirot(1986) 참조.

9) 이 박사논문은 이후 수정·보완되어 단행본(Wallerstein, 1964)으로 출간됐다.

그의 학문적 방법론은 여전히 판에 박힌 자유주의적 입장이었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식민지주의 투쟁을 이끌고 있던 지식인들에 찬사를 보냈으며, 독립을 쟁취하자마자 민주주의적 입장을 포기해버리는 경향에 대해서도 그것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반(反)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책의 이론적 바탕은 여전히 주류 사회학의 입장이었다. 이 책을 저술하여 월러스틴은 그가 10년 후에 혹독한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던 일군의 근대화론자들에게 호감을 사게 됐고, 주류 아프리카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순탄하게 편입될 수 있었다.

(3) 『사회변동론: 식민지 상황』(Wallerstein ed, 1966)

그가 편집해 엮은 이 책에서 그의 견해가 다소 급진화했음이 최초로 암시된다. 당시만 해도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파농(F. Fanon)의 글을 발췌 번역해 실어놓았고(이후 그는 파농의 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종족·인종·민족주의에 대한 포테킨(I. Potekin)의 몹시 투박하고 스탈린주의적인 분석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이 책에 실린 다른 글들은 대부분 근대화론 및 자유주의적 반식민지주의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월러스틴의 초기 아프리카 연구서들은 매우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보수적인 구조기능주의적 방법론을 일관되게 고수하면서도, 정치적인 입장은 계속 반(反)식민지주의라는 급진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은 월러스틴 스스로에게도 매우 갑갑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프리카에 대한 그의 급진적인 입장은 실제 아프리카의 민족주의 독립운동들을 접하고 그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더욱 강화됐는데, 그 저간의 사정은 1970년에 쓴 「프란츠 파농: 이성과 폭력」(Wallerstein, 1970)과 1979년에 쓴 「파농과 혁명계급」(Wallerstein, 1979)이라는 두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파농과의 개인적 친교를 통해 월러스틴은 제3세계의 저항하는 인민들이 자생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던 반(反)제국주의적 입장을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그의 정치적 입장과 문제의식은 그저 문제의식으로만 남아 있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의 저술을 통해 정합적으로 제시

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문제의식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1967년에 들어 그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조금씩 탈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 그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모색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5. 종속이론과 브로델의 영향: 전환의 이론적 계기(1967)

1967년 발표된 두 개의 저술에서 그는 이제까지 답습해온 전통적인 연구방식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연구방식을 고민하는 단초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그가 1960년대 중반 즈음에 알게 된 종속이론과 브로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종속이론과 월러스틴: 발전주의 패러다임의 전복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속이론은 1960년대의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서 파탄을 맞은 근대화론을 대신하여 주변부의 저발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었다.[10] 구체적으로 종속이론은 남미의 정치경제와 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는데, 특히 1960년대 남미에 밀어닥친 경제위기에 의한 수입대체산업화의 실패와 1959년 쿠바혁명의 성공이 직접적인 이론 탄생의 원인이 됐다. 두 사건은 무엇보다 케네디의 '진보를 위한 동맹'으로 대표되는 일국적 발전주의 노선이 남미에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다국적기업(MNCs)들이 지배하는 종속의 구조 속에서 일국중심의 수입대체화를 통한 경제개발 정책은 '저발전의 발전'(Frank, 1980)만을 가져왔던 것이다.[11]

---

10) 이하 종속이론 형성의 정치경제적·사회운동사적 배경과 관련된 설명은 이성형(1990: 20-51)과 염홍철(1998: 35-54) 참조.

11) 1960년대 남미경제의 파탄은 물론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자본축적의 구조적 위기와 미국헤게모니의 하락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이러한 근대화 정책의 실패는 결국 1960년대에 군사쿠데타의 물결이 남미를 휩쓰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비단 미국의 근대화론뿐 아니라, 정통적인 공산당의 또 다른 발전 패러다임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유의해야만 한다. 본래 20세기 초부터 남미의 정통 좌파세력들은 1928년 코민테른 제6차대회에 제출된 「식민지 및 반식민지에서의 혁명운동에 관한 테제」(속칭 쿠시넨 테제)를 추종하여 지역의 사회구성체를 '반(半)봉건상태'로 인식했다. 이는 지역의 공산당세력들이 남미사회를 도시의 자본주의와 농촌의 봉건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생산양식으로 분석했음을 의미한다(Dualism Thesis).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이러한 '이중성(dualism)'을 조장하여 남미의 발전을 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미 공산주의자들의 첫 번째 임무는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고 자본주의로의 본격 진입을 추구하는 애국적인 민족 부르주아지들과 인민전선을 형성해 반(反)제국주의 투쟁을 벌이는 것으로 설정됐다. 당면한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족 부르주아지의 진보성을 인정하고 계급동맹의 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이들 구좌파는 '반제반봉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NLPDR)'을 추구했고, 1950년대에는 지역의 인민주의(populism) 정권이 시행한 수입대체산업화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의 조건에서 수입대체화 노선은 실패했고 민족주의 부르주아는 다국적기업에 기생하는 계급으로 판명되고 말았다.

바로 이런 때에 자본주의 질서에 대항하면서도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방식도 따르지 않는, '카스트로-게바라-포코 노선'으로 불리는 독자적 투쟁방식을 사용하여 혁명에 성공한 쿠바혁명의 예는 당대 남미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쿠바혁명의 성공은 제3세계에 대해 비(非)자본주의적·비(非)소비에트적 발전노선의 가능성을 제시해준 획기적 사태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와 같이 1960년대 남미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가 폭발적으로 고양된 것은 부르주아 사회과학과 교조적 마르크스주의가 공유하고 있던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종속이론의 형성에 비옥한

국면 전환과 관련해서는 Arrighi(1994: 239-324)와 Duménil & Lévy(2006) 참조.

토대가 됐다.[12)]

사실 종속이론 자체는 1950년대 수입대체노선을 주창하던 민족주의적 정권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후원하던 유엔 남미경제위원회(ECLA)의 프레비시(R. Prebisch)에게서 그 개념적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불평등 교환이론과 '중심-주변부'라는 개념의 창안을 통해 주류 경제학의 비교우위이론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개량주의적인 일국중심 발전노선을 제창했다(김기현, 1999).

중심-주변이라는 구조를 제시하여 주변부의 저발전 현상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프레비시의 업적은 분명 종속이론의 선구자라 불릴 만하다. 그러나 일국 차원의 대안을 넘어 더 혁명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근본적 분석을 제공하여 본격적인 종속이론을 개발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칠레의 산티아고 대학에 망명해 있던 일군의 사회학자들이었다. 그중에서도 프랑크(A. G. Frank)와 카르도주(F. H. Cardoso)는 종속이론의 두 대부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이상의 종속이론의 내용은 무엇보다 1960년대까지 월러스틴이 가지고 있던 방법론적 문제틀을 변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한 지역 혹은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외부'의 틀 속에서 규정되며, 전체적인 세계구조를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그의 초기 연구가 전제하고 있던 구조기능주의의 한계를 넘어 이론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기실 일반적인 정치학이나 사회학 교과서에서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은 대개 종속이론의 한 분파로서 취급되고 있다. 이처럼 양자의 관계가 밀접한 것은 무엇보다도 두 이론이 학문사적으로 동일한 시대적 조류의 산물이었고,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즉, 당시 서구 사회과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발전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대라는 학문사적인 시대 요청에 양자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응답했고, 서로의 이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

12) 종속이론의 발전주의에 대한 비판의 함의는 근대세계체제 내에서 현실사회주의 역사의 의미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쟁점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세계체제분석은 현실사회주의가 단지 반주변부로의 상승을 위한 국가자본주의적(중상주의적) 전략에 지나지 않았다고 답변한다. 결국 국가의 권력 장악을 통한 일국적 발전이라는 자유주의적 발상에서 현실사회주의는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Wallerstein, 1984; 백승욱, 2006: 28-32, 2007).

2) 브로델과 월러스틴: 시공간의 구조와 자본주의

그러나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은 이론의 명칭 자체가 나타내는 것처럼 '세계체제'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종속이론과 다른 종별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그가 그의 중요한 지적 스승으로 손꼽는 브로델의 역사학을 수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단적으로 세계체제분석이 역사적 자본주의의 이론적 설명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브로델의 이론에서 그대로 직수입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의 사용을 통해 월러스틴은 여전히 분석의 기초단위를 일국사회에 두고 중심과 주변 사이의 양자관계만을 중시하던 종속이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대세계체제라는 방대한 시공간을 역사적 자본주의라는 총체성을 통해 설명하는 세계체제분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브로델을 수용한 점을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13]

월러스틴은 크게 두 부분에서 브로델의 개념틀을 차용하는데, 하나는 시공간구조로서의 세계체제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과 유통의 차원에서 정의된 자본주의 개념이다. 먼저 '세계체제'라는 분석단위는 브로델의 시공간 개념인 '세계-경제(économie-monde)'와 '장기지속(longue durée)'에서 직접적으로 빌려온 개념이다. 브로델은 지중해 세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계-경제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됐는데, 특히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의 2부 '집단의 운명과 전체의 움직임'에서 지중해 전체를 계측하는 가운데 브로델은 세계-경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나서 브로델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ce et Capitalisme)』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했다(김응종, 2001: 178-207).

이 책에서 그는 세계-경제를 "16세기의 지중해처럼" 경제적으로 자율적이고 자족적이며, 내적 연결과 교환을 통해 유기적 일체성을 부여받은 지구상의 일부분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세계-경제는 천천히 변하는 공간이다. 둘째, 중심부에는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도시가 있다.

13) 이하 브로델과 월러스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Wallerstein(1994)의 5부와 백승욱(2006, 49-88) 참조.

셋째, 상이한 권역들이 위계를 이루고 이들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사이에서는 불평등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듯이 이러한 브로델의 공간관은 월러스틴의 분석단위에서 공간범위를 결정짓는 데 거의 그대로 수용된다.

다음으로, 브로델은 역사학자를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의 논의 속에서 네 가지 상이한 시간대가 등장한다고 이야기한다. 가장 짧은 것부터 나열하면 사건들의 시간인 '단기', 두 번째로 중기이자 순환적 시간대인 '콩종크튀르(conjoncture)', 세 번째로 구조의 시간인 '장기지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神)들의 시간인 '초장기지속'이 그것들이다. 브로델은 사회과학자들이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대신 브로델은 이 두 극을 배제하고 콩종크튀르와 장기지속을 사회과학의 유용한 시간대로 본다. 월러스틴도 바로 이러한 브로델의 다중시간대관(觀)을 받아들여 자신의 분석에서 주된 시간 범위를 500년에 가까운 장기지속인 근대자본주의 세계체제로 설정하게 되며, 패권주기와 콘트라티에프 주기의 분석을 통해 근대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콩종크튀르를 탐구한다.

한편, 브로델은 월러스틴이 거꾸로 뒤집혔다(upside-down)고 표현한 방식으로 자본주의 개념을 독특하게 정의했다.[14] 그 정의의 특이성은 특히 '3분구조론에 입각한 독점자본주의론'과 '유통중심 자본주의론' 그리고 '생산양식 단계론의 부정'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브로델의 독점자본주의론은 우선 그가 경제의 영역을 3개로 구분해 설명하는 데서 시작된다.

> 다른 한편에 불투명한 영역, 흔히 기록이 불충분하여 관찰하기 힘든 영역이 시장 밑에 펼쳐져 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존재하는 기본 활동의 영역이다. 지표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폭넓은 영역을 나는, 더 알맞은 이름이 없어서, **'물질생활' 혹은 '물질문명'** 이라고 명명했다. …… 다른 한편으로, **시장**이라는 광범위한 층의 밑이 아니라 그 위로 활동적인 사회적 위계

14) Wallerstein(1994), 15장 참조.

가 높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위계 조직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환과정을 왜곡시키며 기존 질서를 교란시킨다. …… 18세기의 암스테르담 상인이나 16세기의 제노바 상인은 이처럼 상층에 자리 잡고서 원거리부터 유럽경제나 세계경제의 전 분야를 흔들 수 있었다. …… 시장경제의 투명성 위에 위치하면서 그 시장경제에 대해서 일종의 상방(上方) 한계를 이루는 이 두 번째 불투명한 영역은 나에게는 다름 아닌 **자본주의** 영역이었다. 시장경제 없이 자본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번영한다(Braudel, 1995: 12-3. 강조는 인용자).

이러한 그의 3분구조론은 자본주의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근대세계의 신화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즉, 브로델에게 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은 경쟁인 반면,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은 독점이었다. 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중의 하나가 아니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독점적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이 곧 그의 독점자본주의론의 핵심이었다.[15]

그러나 브로델의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본주의의 유연성을 언급하면서, 애덤 스미스 이래의 중요한 가정인 자본주의의 생산중심적 정의를 폐기하고 유통영역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 마침내 산업과 다른 사업영역 사이의 분업이 완수됐다. 역사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산업자본주의의 도래라고 이야기했으며 나 역시 여기에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역사가들은 동시에 이 시기에 가서야 진정한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자본주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인가?(Braudel, 1997: 823)

그것은 생산문제가 핵심적이라는 마르크스나 프루동의 견해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과거를 되돌아보며 관찰하는 역사가들에게는, 막연하고 갈피를 잡기 힘들며 불충분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생산영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렵

15) "레닌도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즉, 그가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것(달리 말하면 20세기 초에 새로 탄생한 독점자본주의)과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한 자본주의의 병존이 그것이다. 나는 갈브레이스와 레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내가 '경제' — 또는 시장경제 — 라고 부른 것과 '자본주의'라고 부른 것 사이의 영역 차이가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중세 이래 유럽에서 언제나 지속되는 상수라는 것이다"(Braudel, 1996: 322-33).

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유통은 관찰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특별히 유통에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기원은 교환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일이겠는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점은 생산이란 결국 분업을 의미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교환에 응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Braudel, 1996: 19-20).

이러한 브로델의 자본주의론은 자연스럽게 사적 유물론의 중요한 테제인 생산양식 단계론의 부정으로까지 이어진다. 생산양식은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를 향해서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적으로 그리고 불평등한 관계로 공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브로델의 자본주의론은 종속이론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신대륙의 노예제 그리고 동유럽의 재판농노제 등은 모두 중심부의 상업자본주의에 상응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가 된 것들이다(Braudel, 1996: 78).

이상의 브로델의 자본주의론을 수용함으로써, 월러스틴은 한편으로 그의 세계체제분석을 한층 독특한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월러스틴은 이후 한참 동안의 시간을 여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 논쟁을 통해 그에게 붙은 '유통론자'라는 딱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이를 불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16]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월러스틴은 1960년대 중·후반에 종속이론과 브로델에게서 강한 이론적 영향을 받게 되며, 중심과 주변, 세계체제와 같은 개념적 도구들을 수용함으로써 세계체제분석이라는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이 탄생하는 구체적인 변환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계기의 효과가 실제 그의 연구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1967년의 저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6) 이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이므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논쟁의 시말과 그 함의는 이광근(2000), 특히 II장과 III장을 참조하라.

(1) 「국가사회들의 비교연구」(Wallerstein & Hopkins, 1967)

홉킨스(T. K. Hopkins)와의 공동 저술에서 월러스틴은 국가발전에 대한 국제연구(international studies)의 접근 방법을 논의하면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의 중요성을 서술했다(Wallerstein & Hopkins, 1967: 39).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무엇보다 국가들을 전체적인 구조 속에 배열(ordering)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모두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경주를 시작하는 평등한 독립국가들이라는 허구적인 이미지를 대신하여, 발전국가들과 저발전 국가들을 구조 안에서 위계적으로 배치시킨다. 즉, 하나의 부분(민족국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것을 전체 속의 부분으로 위치(배열)시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저술은 월러스틴의 사고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국의 지역연구를 더 넓은 위계적 전체 속에서 사고해야한다는 시각 전환이 이 저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2) 『아프리카: 통합의 정치학』(Wallerstein, 1967)

이 글은 아프리카 독립에 대한 첫 번째 책(Wallerstein, 1964)의 개정판으로 출판됐지만 책의 내용은 1961년도의 구판과는 판이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적인 아프리카주의자들은 독립 이후의 진보에 대한 1950년대 후반의 낙관적 예견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고통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마침 이 책이 발간된 시기에는 가나의 은크루마(Nkruma) 정권이 붕괴됐는데, 대부분의 서구 관측자들은 이것이 그가 주창한 아프리카 사회주의가 결국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이기심의 발로였을 뿐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월러스틴의 반응은 정반대였으며, 그는 거꾸로 책임의 소재를 '바깥'으로 돌려 서구의 자본주의적 신식민지주의를 비난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근대화를 저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서구 자본주의의 장·단기적 이해관계였기 때문이다(Ragin & Chirot, 1986: 341).

그런데 아프리카가 외부의 저항을 물리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통합이 중요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아프리카인들은 제국주의에 고용되어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정치적 통합이 잘되면 잘될수록 스스로를 더 쉽게 외부 열강들의 지배에서 격리시킬 수도 있었다. 또한

이런 목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당(one-party) 국가와 비동맹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매우 중요한 방법론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세계체제'라는 개념이 그의 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 아프리카 통합운동의 행동 반경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세계였다. 왜냐하면 이 운동의 목표가 단순히 아프리카를 변혁시키려는 것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세계를 변혁시킴으로써 아프리카를 변혁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적은 확실히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내부의 적은 외국권력의 대행자로 간주됐다 — 이것이 '신식민지주의'라는 개념의 본질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프리카 통합운동의 출현을 **세계체제(world-system)**와 관련시켜 분석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는 세계체제의 변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agin & Chirot, 1986: 342에서 재인용, 강조는 인용자).

이상에서는 주위 여건으로 인해 평범한 주류 아프리카 연구자로 성장했던 월러스틴이 점차로 자신의 자기모순과 균열을 깨닫고 암중모색을 시작하는 과정을 그려보았다. 특히 이 암중모색의 첫 걸음이 국제정치학의 전통적인 난제 중에 하나인 '안'과 '밖'의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기 위한 탐구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 '밖'의 중요성을 자각했고, 종속이론과 브로델의 연구를 참고하여 '세계체제'라는 개념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적 발전은 이후 성숙한 세계체제분석의 핵심 골간을 이루는 문제의식임이 틀림없다.[17]

한편, 이러한 월러스틴의 지성사는 이 시기에 접어들어 또 다른 커다란 변곡점을 맞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848혁명 이후 두 번째 세계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68혁명이다.

---

17) 이후 월러스틴은 이 시기 자신의 아프리카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고를 하고 있어, 필자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록 이제 나는 더 이상 아프리카 연구를 하지 않지만, 나는 나의 아프리카 연구가 향후 나의 지성사에서, 내가 당대 세계의 정치적 이슈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근대세계체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학자적 고민을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해줬다고 생각한다. 내가 받은 교육의 잘못된 부분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 덕택이다"(Wallerstein, 2000: xvii).

6. 68혁명: 전환의 사회운동적·이데올로기적 계기

68혁명은 월러스틴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생과 학문뿐 아니라 세계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이었음을 강조해온 대사건이었다. 특히 그의 후기 저작들(Wallerstein et al, 1994; Wallerstein, 1996)에서는 68혁명을 1848년 혁명 이후 두 번째의 진정한 세계혁명으로 정의하고, 이 사건이 기존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붕괴하고 이행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음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68혁명 기간 월러스틴의 개인사와 혁명 참여를 통해 강렬해진 그의 정치의식을 살펴보고, 68혁명이라는 대사건 자체가 사회운동과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이후 세계체제분석의 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겠다.

1) 68혁명의 발발과 월러스틴의 참여

1968년 당시 월러스틴은 컬럼비아 대학의 부교수로서 세계체제에 대한 구상을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즈음 그는 홉킨스(T. K Hopkins), 헥터(M. Hechter) 등과 함께 컬럼비아 대학에서 세미나와 강의 형식으로 근대 초기 유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다(Goldfrank, 2000: 157). 그러나 이 시기에 68혁명이 발발함에 따라 그는 혁명의 한복판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됐고, 1967년부터 시작한 세계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잠시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다.

> 1968년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서방세계에서 대규모의 사건이 최초로 터진 곳이 컬럼비아 대학이었습니다. 파리의 봉기사태보다 한 달 앞서 일어났지요. 나는 곧바로 그 한가운데 끼어들게 됐는데, 학생들이 대학당국에 반대하여 건물을 점거하면서 내세운 주된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베트남전쟁 문제였는데, 대학이 국방부와 다른 정부기관을 위한 베트남전쟁 관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쟁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둘째 당시 주요 쟁점이던 흑백 인종관계였는데, 컬럼비아 대학이 공원 땅을 사들여 체육관을 지음으로써 흑인 지역사회가 사용하는 땅을 빼앗아간다는 점등이 문제가 됐어요. 일단의 교수들이 재빨리 모임을 형성해서 일주일 동안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이 대규모 교수모임의

공동의장이었는데 중재 노력은 결국 실패했어요. 일주일 후 학교당국은 경찰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학생들을 대학건물로부터 축출했는데 물론 이건 새로운 폭발을 초래했을 따름이지요. 그 후 우리는 대학의 구조를 수정하려는 오랜 작업에 착수했고 실제로 한 2년은 결렸어요. 그래서 그 사태에 나는 꽤 깊이 관련돼 있었지요. 그 무렵 이에 관해 책을 두어 권 썼어요(Wallerstein, 1999b: 136-7).[18]

이후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는 이 68혁명이 지닌 많은 중요성과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었지만 사건 직후에 그가 떠올린 혁명의 의미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점이었다. 하나는 이 사건을 더욱 넓은 문제와 관련지어 사고해야 한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좌파 사상가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반추해볼 때가 됐다는 깨달음이었다. 각각의 영향은 그가 68혁명 이후 쓴 두 저술에서 잘 드러나 있다.

(1) 『혼란에 빠진 대학: 변동의 정치학』(Wallerstein, 1969)

이 책에서 그는 특별히 급진적인 논조를 띠지는 않았지만 미국 대학의 동요를 미국인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더 광범한 문제, 더 나아가서는 그의 세계체제적 관점과 연결시켰다는 점이 독특했다. 이 책은 당시 상황이 미국의 학문적 전통에서 예외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기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미국의 급진적인 학생들에게 미국 대학이 세계권력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그는 대학에 대한 급진파 학생들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이 분노를 폭넓은 관점에서 파악했다(Ragin & Chirot, 1986: 343).

(2) 「자유주의 사회의 급진적 지식인」(Wallerstein, 1971b)

월러스틴과 68혁명 당시 그와 함께 참여한 ≪스펙테이터(The Spectator)≫지의 학생기자였던 폴 스타(P. Starr) 두 사람은 68혁명기 미국 대학들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태에 대한 글들을 엮어서 책으로 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권으로 출판

18) 이 글은 월러스틴과 백낙청 교수가 1998년 12월 5일 페르낭 브로델 센터에서 가진 대담이다.

된 『대학의 위기(University Crisis Reader) I, II』(Wallerstein & Starr eds., 1971)다. 두 사람은 각 권의 말미에 68혁명에 대한 지적·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에세이를 썼는데, 월러스틴은 특히 자유주의 사회에서 급진주의적 지식인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19]

2) 68혁명의 결과: 세계체제분석 등장의 배경 형성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월러스틴은 68혁명의 결과에 대해 그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다. 그런데 월러스틴이 강조하는 혁명의 결과 중의 하나는 자신의 세계체제분석이 탄생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이 혁명에 의해 형성됐다는 점이었다. 즉, 그는 68혁명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으며, 그러한 역사의 전환이라는 호명에 적절히 응답한 것이 자신의 세계체제분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20]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무엇이 68혁명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월러스틴 자신의 설명을 통해 알아보고, 그것이 세계체제분석과 관계하는 함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형태는 각각이었지만 나는 당시에도 여러 논문을 통해 그렇게 주장했고 이후에는 더욱 그랬는데, 모든 곳에서 저변에 되풀이되는 두 가지 공통된 주제를 세계혁명이 지녔다는 것이었지요. 첫 번째 주제는, 외견상 대단한 적대자들인 미국과 소련이 실제로는 공모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두 초강대국을 비난하는 이야기도 그랬지만, 신좌익과 나머지 세계가 "두 집 모두 망해버려라"[21]라는 식으

19) "학생들의 반란은 급진적 지식인들이 다시 일어나 그들의 적절한 위치를 그 운동 속에 위치 지을 기회를 복원시켰다. 실천과 사상 간의 딜레마란 허구다. 급진적 지식인은 두 영역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그는 그 둘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한다. 그는 운동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는 대학을 방어해야 하지만, 동시에 비판해야만 한다. 그는 자발적 행동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자신과 타인들이 그것에 매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Wallerstein, 2000: 38).

20) "세계체제분석이 1970년대에 형태를 갖추었다면, 이는 세계체제 내에서 그 등장을 위한 조건이 성숙했기 때문이다"(Wallerstein, 1999a: 268).

로 나왔지요. …… 두 번째 주제는 …… 반항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된 과녁이 우익이 아니라 좌익이라는 점이었습니다. …… 즉, 20년, 40년, 또는 100년간 반체제 운동으로 행세하던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의 혁명세력이 하는 말은, '당신네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당신들이야말로 문제의 일부'라는 거였습니다. …… 나는 이 두 주제가 하나의 공통된 주제임을 깨달았고, 뒤이어 이를 내가 지금도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즉, 공통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세계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지구문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나라에서든 옳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매사가 나아질 수 있고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옳은 사람이 잡기만 하면 그들이 체제를 의미심장한 정도로 개혁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지요. …… 1968년의 사태는 민중들이 "그래 당신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본 거지요(Wallerstein, 1999b: 137-9).

이처럼 68혁명은 월러스틴에 의하면 무엇보다 '자유주의 이후'(Wallerstein, 1996)의 세계를 창조해주었다. 전 지구적인 사회운동과 이데올로기의 지형이 급격히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실재세계의 반영인 학문세계도 바뀌어야만 했고, 이런 변화의 시대 요청에 의해 세계체제분석은 '운명적'으로 탄생해야만 했다.

그 결과로 이 세계의 대학들에서, 나아가 이 세계의 지성계에서 벌어진 사태는 자유주의적 합의가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 우리들 몇몇이 제기해서 세계체제분석(world-system analysis)이라 불리게 된 작업에 호응이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였습니다. 세계체제분석의 주장인즉, 자유주의적 합의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탕을 이루는 일련의 지적 개념들이 존재하여 사회과학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는 — 내 표현이지만 — 그런 사회과학을 '탈사고(unthink)'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Wallerstein, 1999b: 139-40).

이처럼 68혁명은 세계체제분석 탄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우선 월러스틴 개인을 세계체제분석의 산모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지적으로 단련시켜 준 것이 68혁명이었다. 이 사태로 그는 더욱더 주류 사회과학

21)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의 친구 머큐시오가 두 원수 집안의 싸움을 말리다가 죽으면서 내뱉는 대사다(Wallerstein, 1999b: 138).

에 회의하게 됐고, 사물의 의미를 더욱 넓은 틀 속에서 파악해야만 한다는 통찰력을 얻게 됐다. 한편, 시대적 변동 상황은 세계체제분석의 탄생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급변한 사회현실은 더 이상 기존의 낡은 사회이론으로는 설명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론과 실천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7. 세계체제분석의 기나긴 임신기(-1972·1974)

그러나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은 1974년에야 공식적으로 두 개의 저술(Wallerstein, 1974; 1999a)을 통해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두 저술은 모두 비공식적으로는 1972년에 1차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전까지 즉, 1968년에서 1972년까지의 기간은 그의 이론발달사에서 거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 기간에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의 기나긴 임신기였다. 월러스틴에게 이 3년간은 그와 같은 고통의 기다림, 그 자체였다. 그에게 이 시기는 지적으로는 세계체제분석의 역사적 연구를 제시하는 대작(Wallerstein, 1999a)을 저술한 연마의 시간이었지만, 68혁명의 여파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방랑의 길을 떠나야만 했던 고난의 시간이었다.

1) 방랑자 월러스틴(1968-1972)

> 1968년 전까지 나는 컬럼비아 대학에 평생 있으리라는 생각이었지요. …… 하지만 대학의 봉기사태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어느 편이었든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학을 옮기게 됐듯이 내 경우도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냥 좀 복잡한 일[22]에서 떠나고 싶었고 그래서 옮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 1970년부터 1971년까지 나는 캘리포니아 주 팔로 알토의 행동과학고등연구소에 있었는데, 그 1년을 『근대세계체제(*Modern World-System*)』 첫 권을 쓰면서 보냈습니다. 이 책이 당연히 나를

22) 그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운동을 옹호하여 대학당국 및 주변 동료교수와 마찰을 일으켰다.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지요. 이제 나는 아프리카 전공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 근대세계체제에 관한 저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해야 했고 캐나다 몬트리올의 맥길 대학(McGill University)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맥길 대학도 물론 1968년의 영향을 겪었지요. …… 퀘벡 민족주의 및 분리운동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맥길 대학은 알다시피 퀘벡 주 한복판에 있는 영어사용 대학이지요. 아무튼 나는 비록 어떤 의미로 국외자이고 참여에 일정한 한계를 두지 않을 수 없긴 했지만 거기서도 퀘벡 문제 등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환경도 긴장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고 몇 해 지나면서 맥길대 사회학과 내부가 너무도 팽팽해졌어요(Wallerstein, 1999b: 146-8).

이 시기의 월러스틴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많은 곤혹을 치르게 됐다. 다행히 근대세계체제에 대한 연구작업은 차근차근 진척되어가고는 있었지만, 기대만큼 빠르게 연구성과를 발표할 수는 없었다. 도리어 이 시기에 발표된 월러스틴의 다른 연구성과들을 보면 아직까지 그가 본격적인 세계체제론자로 성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그가 1970년 9월 15일 제7차 세계사회학대회의 '2차 개발시기의 사회학(Sociology in the Second Development Decade)' 특별분과에서 발표한 논문(Wallerstein, 1971a)이다. 이 논문에서도 물론 그가 1967년경에 발전시켰던 '안'과 '밖'의 이슈가 논의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논문의 서술이 그러한 1967년경의 문제의식을 한 치도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세계체제라는 구체적인 총체성 개념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적인 초기 종속이론의 설명과 주장만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

특히 이 논문에는 그가 한창 연구하고 있었을 브로델의 '세계-경제' 개념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외부세력 또는 제국주의라는 기존개념들의 언급을 통해 '밖'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논의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세계체제의 개념이나 작동방식에 대한 과학적 논의와 역사적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세계체제분석은 아직 미발달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세계체제' 탄생의 징후들(1972-1973)

1972년이 되면 월러스틴은 자신의 세계체제분석이 처음으로 완성된 형태로 제시되는 두 저술의 초고를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 마무리와 주변의 논평을 받기 위해[23] 두 저술의 발표는 1974년도로 미루고, 대신 1972년과 1973년에 자신이 완성한 세계체제론의 윤곽을 보여주는 두 개의 짧은 논문을 발표한다. 두 글은 이미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분석단위인 세계체제 개념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이나 형식에서 1974년도에 나올 주요 저술들의 시험판(pilot version)에 가깝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

(1) 「16세기 국가발전의 세 가지 경로」(Wallerstein, 1972)

이 글은 1974년에 나올 『근대세계체제(Modern World System)』 I권의 축약판 형태를 띠고 있었다. 브로델의 이론을 따라 16세기의 유럽정치경제를 연구함으로써, 현대세계체제의 원초적 형태를 이해해보자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였다.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의 특징을 각각 묘사한 후, 16세기 초만 해도 비슷한 지위에 있던 영국-베니스-폴란드가 16세기 말에 들어 근대세계체제의 일정한 지위로 제각기 편입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했다. 글의 후반부에서 이 논문이 일종의 습작임을 명시함으로써, 그는 본격적인 저작이 곧 출간될 것임을 예고했다.

(2)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아프리카」(Wallerstein, 1973)

이 글은 그가 1972-1973년 기간에 아프리카 연구협회(African Studies Association)의 회장으로 있을 때 발표한 연설문이다. 그는 이 연설문을 통해 그 당시 자신이 발전시켜가고 있던 새로운 시각 — 즉, 세계체제분석 — 으로 당대의 아프리카를 새롭게 연구하자고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1950-19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와 '자본주의'라는 두 단어가 아프리카 연구자들의 동일한 논문에서 동시에 쓰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당대 지역연구

23) 이때 논평을 한 인물들로는 페르낭 브로델, 찰스 틸리(C. Tilly), 더글러스 다우드(D. Dowd), 안드레 군더 프랑크 등이 있다. Wallerstein(1999a)의 감사의 말 참조.

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의 내재적인(intrinsic) 한 부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24]

이 글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이제 아프리카 연구협회 회장직을 끝으로 더 이상 아프리카 지역 연구자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체제연구자로 활동할 것임을 선언하는 성격을 지니기도 했다. 이제 세계체제라는 구조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분석단위를 아프리카 같은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만 한정하여 수행되는 연구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8. 세계체제분석의 탄생과 그 의미

1974년, 드디어 세계체제분석의 1차 주저들이 발표됐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 발표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세계체제분석은 기존의 사회과학 패러다임 전체에 대한 항의와 그 기본 원칙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 공격은 크게 두 가지 방향 — 분석단위의 문제와 방법론 논쟁의 폐기 — 을 겨냥하고 있었다. 정상과학으로서 19세기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은 이제 세계체제분석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의 위기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Unthinking Social Sciences)'(Wallerstein, 1994), 그것이 바로 세계체제분석이 내건 기치였다.

> 나는 내가 '세계-체제분석'이라 부른 시각으로 세계를 관찰하려 한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두 개의 주요한 지적 결정을 의미한다. 첫 번째 것은 '분석단위'의 선택으로서 오직 가능한 분석단위는 '세계체제', 또는 더 일반적으로 말해 '역사적 사회체제'라는 점이었다. 두 번째의 지적 결정은 모든 근대 사회과학을 떠받치고 분할하고 있는 이른바 방법론 논쟁(Methodenstreit)[25] — 완전히 잘못된 논쟁 — 을 폐기하는 것이었다(Wallerstein, 2000: xvii).

---

24) "오늘날의 아프리카는 하나의 세계-체제(world-system),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의 현 구조들과 과정들은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틀 속에 위치시켜 놓고 고려하지 않는 한 이해될 수 없다"(Wallerstein, 2000: 64).

25) 개별기술적 학문과 법칙정립적 학문 간의 방법론 논쟁을 가리킨다.

한편, 이 시기의 월러스틴은 그의 학문적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개인적인 사정도 이전보다 훨씬 잘 풀려나가게 됐다. 1968년 이후 계속되던 이단자 취급과 떠돌이 신세를 면하고, 드디어 뉴욕 주립대학 빙엄튼 분교(SUNY at Binghamton)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 시기부터 그의 세계체제분석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 하나의 거대한 학파로 자라나게 된다.

(맥길 대학에서 결국 나오게 된 후 — 인용자) 그 대목에서 내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빙엄튼으로 오는 것이었는데, 이곳에는 나와 동갑이고 컬럼비아 대학 시절 가까운 동료였던 테렌스 홉킨스가 1971년에 먼저 와서 사회학과의 대학원 과정을 출범시킨 바 있었지요. 그가 나더러 함께 일하자는 거였어요. 대학당국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실제로 학과장을 맡아 과를 키우고 연구소[26]도 만들어보라고 해요. 마음에 드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오기로 했지요. 당시는 이렇게 오래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21년이 지나도록 아직 여기 있어요.[27] 연구소도 아직 있고요. 홉킨스는 2년 전에 작고했지만, 이 연구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체제분석의 중심지가 됐지요.[28] 우리 학생들이 일대에 퍼져 있고, 연구와 저술 그리고 우리의 잡지 ≪리뷰(*Review*)≫등과 관련된 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업적이 쌓였습니다(Wallerstein, 1999b: 148).[29]

---

26) '경제와 역사적 체제들 및 문명들의 연구를 위한 페르낭 브로델 센터(Fernand Braudel Center for the Study of Economics, Historical Systems, and Civilizations)'를 가리킨다. 이 센터는 1976년 9월 창립됐으며, 그해 11월 『연구프로그램 제안서(*Proposed Research Programs*)』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발행했다. 이 소책자는 센터의 목표(the Objectives of the Center)라는 제목으로 서두를 열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연구소의 활동목표가 월러스틴이 말한 '19세기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로서 세계체제분석 탄생'의 2대 기치 — 분석단위로서 구조적 전체의 추구와 방법론 논쟁의 폐기 — 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http://fbc.binghamton.edu/fbcintel.htm, 검색일: 2008.3.31.).

27) 현재 월러스틴은 자리를 예일 대학교로 옮겼다.

28) 구체적인 연구소의 활동상을 알기 위해서는 당 연구소의 홈페이지(http://fbc.binghamton.edu/index.htm, 검색일: 2008.3.31.)를 참조할 것.

29) 세계체제학파 학자들의 연구업적들은 이제 온라인상에 축적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데 World-Systems Archive(http://wsarch.ucr.edu/, 검색일: 2008.3.31.)에서 그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체제학파의 주요한 제도적 거점으로서

이로써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은 새롭게 탄생했다. 또한 지적·학문적인 완성도에서뿐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도 그의 분석은 하나의 학파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됐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세계체제분석의 탄생이 하나의 집단적인 지적 운동이라는 점이다. 68혁명을 통해 기존의 자유주의적 발전주의의 환상과 19세기적 사회과학의 이데올로기성이 폭로된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한 세계체제분석은 월러스틴이라는 학자 개인의 고유한 창작물이기보다는 시대의 창조물이었다.

즉, 현실의 차원에서 국민국가와 발전, 진보와 근대화 등의 단어로 상징되는 근대의 패러다임이 붕괴된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실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일군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당대의 사회과학계를 휩쓸고 있었으며, 월러스틴은 이러한 풍토에 기반해 세계체제라는 분석단위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학문적 공헌은 '자유주의 이후'(Wallstein, 1996)의 거시적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문제틀(problematique)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단절(epistemological break)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월러스틴은 역사과학의 발전을 견인한 것이었다.[30] 결론적으로, 세계체제분석 탄생의 의미는 그것이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를 딛고 근대세계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탈근대 질서에 대한 전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과학, 나아가서는 근대성 자체에 대한 지적이고도 집단적인 대반격을 함축하고 있었다(신윤진, 1995).

(2008년 2월 25일 투고, 3월 30일 게재 확정)

브로델 센터 외에 들 수 있는 것으로는 월러스틴이 『근대세계체제 I』로 소로킨상을 받은 1975년 샌프란시스코 연례 사회학대회에서 미국 사회학회의 한 분과로 창립된 세계체제의 정치경제분과(PEWS,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System)가 있다. 이 학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수훈(1993: 79-81)과 http://www2.asanet.org/sectionpews/(검색일: 2008.3.31.) 참조.

30) 한편, 세계체제분석의 형성과 의미를 교과서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백승욱(2006)의 경우 '역사적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문제설정에 중심을 둔 결과, 월러스틴보다는 이를 더욱 세련화한 아리기(Arrighi, 1994)를 더 중요하게 본다. 즉, 마르크스의 자본주의론이 가지고 있는 '역사 없는 역사성' 문제를 수정하고 자본주의의 실제 역사를 세계헤게모니의 순환으로 설명하는 아리기가 세계체제분석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역사과학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이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과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월러스틴의 개인저술

(1) 단행본

Wallerstein, I. 1961. *The Politics of Independence*. Vintage.

_____. 1964. *The Road to Independence: Ghana and the Ivory Coast*. Mouton.

_____(ed.). 1966. *Social Change: The Colonial Situation*. Wiley.

_____. 1967. *Africa: The Politics of Unity*. Random House.

_____. 1969. *University in Turmoil: The Politics of Change*. Atheneum.

_____. & P. Starr.(eds.). 1971. *The University Crisis Reader I, II*. Random House.

_____. 1994.『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19세기 패러다임의 한계』. 성백용 옮김. 창작과 비평사.

_____. et al. 1994.『반체제운동』. 송철순·천지현 옮김. 창작과 비평사.

_____. 1996.『자유주의 이후』. 강문구 옮김. 당대.

_____. et al. 1996.『사회과학의 개방』. 이수훈 옮김. 당대.

_____. 1999a.『근대세계체제1: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나종일 외 옮김. 까치.

_____. 2000. *The Essential Wallerstein*. The New Press.

_____. et al. 2001.『냉전과 대학: 냉전의 서막과 미국의 지식인들』. 정연복 옮김. 당대.

_____. 2005.『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이광근 옮김. 당대.

(2) 논문

Wallerstein, I. 1954. "McCarthyism and the Conservat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lumbia University.

_____. & Terence Hopkins. 1967. "The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Societies." *Social Sciences Information* Vol.6. No.5.

_____. 1970. "Frantz Fanon: Reason and Violence."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Vol.15.

_____. 1971a. "The State and State Transformation: Will and Possibility." *Politics and Society* Vol.1. No.3.

_____. 1971b. "Radical Intellectuals in a Liberal Society" in I. Wallerstein & P. Starr(eds.). *University Crisis Reader II*. Random House.

_____. 1972. "Three Paths of National Development in the Sixteenth Century."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7. No.2.

_____. 1973. “Africa in a Capitalist World.” *A Quarterly Journal of Africanist Opinion* Vol.3. No.3.
_____. 1974.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 History* Vol.16. No.4.
_____. 1979. “Fanon and the Revolutionary Class” 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84. “Socialists States: Mercantilist Strategies and Revolutionary Objectives.”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85. 「사회과학에 있어서 세계체계의 시각」. 정진영 편역. 『세계체계론: 신종속이론』. 나남.
_____. et al. 1991. 「근대 세계체제의 발전 유형」. 세계정치경제연구소 편역 (1991).『세계체제론 1: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 들녘.
_____. 1999b. 「21세기의 시련과 역사적 선택: 세계체제,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백영경 옮김. 『유토피스틱스, 또는 21세기의 역사적 선택들』. 창작과 비평사.

2. 기타 참고문헌

김기현. 1999. 「라울 프레비시와 종속이론」. 이성형 엮음.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까치.
김응종. 2001.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아르케.
노재봉. 1985. 「‘안’과 ‘밖’: 國際政治學의 方法論 硏究」. 『思想과 實踐: 現實政治認識의 基礎』. 녹두.
백승욱. 2006. 『자본주의 역사강의: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 그린비.
_____. 2007. 「이행기 논쟁과 장기 21세기」. 제3회 맑스코뮤날레 조직위원회 엮음.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 문화과학사.
신윤진. 1995.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모더니티 批判에 대한 考察」.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염홍철. 1998. 『다시 읽는 종속이론』. 한울.
이광근. 2000. 「패러다임 비판전략으로서의 세계체제 분석에 관한 연구: 세계체제 분석 안팎의 논쟁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성형. 1990.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성체 논쟁: 1960-1980년대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수훈. 1993. 『세계체제론』. 나남.
Arrighi, G.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Verso.
Bach, R. L. 1991. 「세계체제론적 시각의 전체론적 방법론」. 세계정치경제연구소 편역.

『세계체제론1: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 들녘.
Braudel, F. 1995-1997.『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II』. 주경철 옮김. 까치.
Duménil, G. & D. Lévy. 2006.『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이강국·장시복 옮김. 필맥.
Frank, A. G. 1980.「저개발의 개발」. 변형윤·김대환 엮음.『제3세계의 경제발전: 저개발과 종속』. 까치.
Goldfrank, W. L. 2000. "Paradigm Regained? The Rules of Wallerstein's World-System Method."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VI. No.2.
Packenham, R. A. 1998. *The Dependency Movement: Scholarship and Politics in Developmental Studies*. Harvard University Press.
Ragin, C. & D. Chirot. 1986.「왈라스틴의 세계체계: 역사로서의 사회학과 정치학」. 박영신 외 옮김.『역사 사회학의 방법과 전망』. 민영사.
Shannon, T. R. 1996. *An Introduction to the World-System Perspective*. Westview Press.

my opinion Marx's system for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and its method of ascending to the concrete could give the key to this question. Especially, what is methodologically important is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s of abstraction in the presentation of crises. On the level of abstraction of *Capital* it is supposed that price relations accord with value or production price relations and that the balance of supply and demand is maintained. For this reason, overproduction crises are to be neither demonstrated nor denied on this level of abstraction. It is only on the level of the actual movement of competition which belongs beyond the scope of *Capital* that crises can be described as arising from disproportionalities and overproduction.

Key words: overaccumulation theory, overproduction theory, the level of abstraction.

The Birth of World-System Analysis: A Study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Cha tae-suh

This study explores the six developmental phases of Immanuel Wallerstein's thought from his younger days to 1972/74 when World-System Analysis was created. It focuses on the political and theoretical situation, which served as the context of the birth of World-System Analysis from the sociology of knowledge perspective. In the second and the third chapter, it is described how Wallerstein's basic Weltanschauung and political consciousness were formed in his school days. The fourth, the fifth and the sixth chapter show Wallerstein's theoretical turning after the impact of Dependency theory, Fernand Braudel and 1968 Revolution, before which he had been a student of mainstream Area Studies based on structural functionalism and modernization theory. And the birth process of World-System Analysis, claiming a new unit of analysis, is explained in the seventh and the eighth chapter. In conclusion, we make it clear that the meaning of World-System Analysis is placed in collective intellectual movement which unthinks the dominant modern social science and

presents new postmodern science of history after 1968 Revolution.

Key words: Immanuel Wallerstein, 1968 Revolution, modernization theory, World-System Analysis, postmodern science of history.

Culture and the Market: Korean Culture in the Age of Neoliberalism

Kang nae-hui

Culture in today's South Korea seems to exist *in* the market, *by* the market, and *for* the market. It is now a direct commodity that circulates in the market in the form of a phantasy novel, a blockbuster movie, or a computer game, a 'content' for adding value to high-priced articles such as a car or apartment, advertising that promotes other commodities, an industry that helps to revitalize the economy, symbolic capital that raises the value of an individual's labor power.

Of course, there once was a time when culture's social status and function was different, when it was relatively free from market forces. For until the early 1990s, at least some high culture could enjoy an independent status as 'institutional culture' supported with public funds, even retaining the prerogative to distinguish itself from the mass culture that had already been commercialized. But gone are those days when culture enjoyed such relative autonomy.

How did culture that had relative autonomy from the market take the road to marketization or commdification, and how could the market bring culture into its domain of influence? What are the forces and conditions that have changed the shape and social functions of culture. What forces helped to expand the market's control over the society? In that the expansion of the market, the total subjection of culture to the market took place since the early 1990s, one suspects that they must have to do with the recent social changes in Korea. What kind of changes has Korean society undergone?

With respect to these quest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rketization of